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9
2016.0506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수자타 유치원에서 원생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유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도화지 속에 폭 빠져들어 알록달록한 색으로 동심을 표현했습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저체중아 교육에 집중하는 어머니들



P13 길벗과 함께한 명동 거리모금



P18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법주사 나들이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내 몸무게와 키는 얼마? - 백은하
- 07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아름다웠던 그때로! - 박시현



국내소식

- 13 함께 나누는 사랑
2016년 어린이날 전국 거리모금 캠페인
법륜스님과 함께 떠난 다문화 가족 봄나들이 - 김규림



활동터소식

- 18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25 후원인의 소리
- 26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6. 6. 13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다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권지연, 김영숙,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김명순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지바카 병원에서 저체중아 신체 측정 중



“동게스와리에서는 발육 정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중아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2016년부터 인도JTS는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활동가들을 지원해왔던 인도인 스태프들이 각 부서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사업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 활동가들은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부서 책임자가 바뀌던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한 걸갈이 자리를 지켰던 인도인 스태프들은, 팀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드디어 자리를 제대로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만큼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바카 병원은, 전정각산 주변 여러 마을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지바카 병원에서선 결핵 퇴치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외부 의사들의 봉사를 통한 무상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모자보건 사업의 일부로 매년 동게스와리 15개 마을의 저체중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부르는 “동게스와리”라는 지명은 “부정한 땅”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부정한 사람,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이곳 주민들이 교육받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게 하고, 그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동게스와리에서는 발육 정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중아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지바카 병원에서는 이런 저체중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서 발육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식을 지원하는 저체중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무게와 키는 얼마?

- 2016년 저체중아 지원 사업 1차 지원을 마무리하며

동게스와리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 저체중아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3개월 동안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쿠폰을 발급하고, 아이의 몸무게와 키를 측정해서 등급을 매기고, 다시 명단을 작성하고, 쿠폰을 나누어 주고... 드디어 5월 첫째 주, 1,027명의 저체중아에 대한 첫 번째 지원을 마쳤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백은하 활동가

“젖먹이 신생아부터 몇 번의 측정 경험이 있는 5세 유아까지, 인도 스태프들은 노련한 솜씨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몸무게와 키를 잰습니다.”

병원 담당자인 삼부 팀장의 지원 업무를 맡은 후 3개월 동안, 저체중아 지원 사업 파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동게스와리 지역에 사는 0세~5세 아이들을 처음에는 이 사업 파일에 적힌 이름과 숫자로 만났지만, 마을별로 신체 측정을 진행하면서 명단 위의 이름일 뿐이었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를 재는 어린이

지원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아이들 신체측정을 하는 날. 한국 병원의 다양한 최신 장비를 생각한다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신체 측정기구 앞에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젖먹이 신생아부터 몇 번의 측정 경험이 있는 5세 유아까지, 인도 스태프들은 노련한 솜씨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몸무게와 키를 잰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영유아 1,027명의 측정을 마치고, 측정된 몸무게와 키를 바탕으로 WHO의 저체중아 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저체중아 지원을 위해 준비한 영양식

그렇게 명단과 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인도의 뜨거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말의 “덥다”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저체중아 지원 물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삼부 팀장과 함께 뜨거운 날씨를 뚫고 가야 시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60~70년대의 왁자지껄한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가야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좀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 “깎아주세요.”를 연발하며 발품을 팔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듯합니다.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주민들

한국의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 인도에서는 1차 저체중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상 등급으로 판정된 아이의 부모에게도 저체중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첫날은 바로 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짜였고, 외부 의사를 초청해서 진행했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저체중아 인식 교육을 시청각장비를 활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 저체중아가 줄도록 부모의 인식과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5월 6일부터는 저체중 판정을 받은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되는 영양식은 주로 쌀과 인도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인 “달”이라는 콩을, 비타민, 식용유, 비스킷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1시간의 저체중아 교육이 끝나고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거리가 먼 마을 주민부터 차례대로 지원물품 배분 장소로 보냈습니다. 지원대상 명단과 사전에 배분한 쿠폰을 대조해서 스태프가 쿠폰에 확인 도장을 찍어 돌려주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스태프들이 그 쿠폰을 받고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어느 거리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전달된 정성이, 인도인 스태프들의 노력을 거쳐 여기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6차례의 저체중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동게스와리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점검하여 성장 상태를 확인할 것이며,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 저체중아가 줄도록 부모의 인식과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양의 지원물품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2차 지원 때는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라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완공 직후의 가가후만 학교 모습



아름다웠던 그때로!

- 신축보다 길었던 학교 보수공사



명단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주민

2015년 9월에 시작한 학교 보수공사를 2016년 5월에야 마무리했다. 그동안 담당자도 4명이나 거쳐 갔고, 군청 관계자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도 학교를 지을 때보다 더 자주 했다. 주민의 손으로 새롭게 단장된 교실에서, 오는 6월 새 학기부터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길 바란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박시현 활동가

가가후만은 JTS가 필리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지원한 오지 마을이다. 마을까지 가는 길이나 마을 전경이 무척 아름답지만, 워낙 깊은 산 속의 외진 곳이라 JTS가 2003년 방문할 때까지 다른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에서 마을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옥수수과 고구마로 겨우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인 데다가 마실 물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었다. 그나마 가까운 임파하농 초등학교는 10km나 떨어져 있었고, 학교까지 가는 길이 워낙 험해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12살이 되어야 겨우 1학년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마을 다투(부족 공동체 지도자) 만사이사안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조상대대로의 꿈이라면서 학교가 들어서기를 간절하게 소망했고, JTS는 학교 건축을 시작하여 2004년에 학교를 완공했다.

2015년 9월 1일 가가후만을 처음 방문했다. 같이 갔던 활동가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멋있다고 할 정도로 풍광이 좋았다. 하지만 다른 마을과 달리 가가후만에서는 그 흔한 옥수수밭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길옆에는 이곳 사람들이 먹지 않는 고사리만 지천으로 자라있었다. 마을에 도착하고 보니 남자들은 다른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고 마을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뿐이었다.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학교

2009년 마을에 광산이 들어오면서 가가후만 주민 대부분이 돈을 많이 주는 광산에 가서 일하느라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후 그 광산이 문을 닫았는데, 그동안 모든 농지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전보다도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에 사람도 별로 없고 행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마을 풍경과 달리, JTS가 지은 학교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는 올해 필리핀 정부의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발 프로젝트(KC-NCDDP)에서 지어준 콘크리트 교실 한 칸이 있었다.

2004년에 지은 학교에 도착해서 보니 왜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한 눈에 바로 알 수 있었다. 건물 양쪽에 있었던 복도는 썩어서 사라져버렸고, 마룻바닥에 난 구멍으로 아이들 발이 빠지기도 한다고 했다. 학교가 이 지경인데도 왜 주민들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나 싶었지만, 당장 생계가 급하니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해가 됐다. 마을의 책임자인 다투를 만나 학교건물에 대해 의논하는데, 다투는 학교 건물을 부족 사무실과 방문객 숙소로 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1학년 54명, 2학년 32명, 예비 초등학생까지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새로 지은 교실 한 칸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후 9월 말까지 3차례의 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학교 복도, 난간, 천장, 지붕 연장, 창문과 철판 교체, 페인트칠 등 학교 보수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정별 책임자도 선발했다.



부서진 복도와 사라진 난간



학교 보수를 위한 주민회의

10월에 가가후만이 속해 있는 말리복 군의 군수와 몇 차례 만났는데, 군수도 가가후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심도 많았다. 그래서 군청이 트럭과 기술자, 푸드 포 워크(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참여유도 방식)를 지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말리복 군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임금 대신 쌀 4만 페소(약 100만 원) 어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수공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끝나고,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학교 보수에 쓸 목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2월, 드디어 보수공사에 쓸 자재를 배달하려고 아침 9시에 군청 트럭 기사와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했는데, 트럭 기사가 한 시간 반이나 늦게 나타났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재를 배달해야 하니 일단 가가후만으로 출발했다.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워진 길 때문에 차가 진창에 빠졌다 나오기를 반복했고, 한번은 도저히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도로공사를 하던 굴착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했다. 그 때문에 3시간이면 올 거리를 5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겨우 도착했다. 약속한 시각보다 도착이 늦었음에도 트럭 기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주민들도 웃으면서 자재를 옮겨준 덕분에 무사히 배달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보수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주민 대부분이 마을 진입로 도로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투 역시 도로공사에 매진하고 있어서 책임자로서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군청에서 푸드 포 워크도 제때 지급이 되지 않아, 학교 보수공사 일을 하는 목수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처음에는 큰 의욕을 보이며 참여하던 사람들도 군청의 지원이 미진하니 점차 생계를 찾아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 문제를 다투에게 상의했더니, 자신이 책임지고 주민을 조직하고 군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투가 군수를 만

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군청에서 쌀 25kg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목수 한 사람의 5일분 지급량에 불과했다. 그 후 몇 차례 더 군청을 방문했으나, 더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2016년 3월 내부 회의를 거쳐 JTS가 직접 푸드 포 워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다시 활기를 찾아, 부족한 목재를 2주 만에 추가로 마련하고 목수 4명이 매일 대패질을 하여 자재를 준비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원봉사에 나서준 주민들이 고마웠다.

학교 보수공사는 복도 수리를 시작으로 1주일이면 한 가지 공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매주 답사를 가서 공정과 자재 재고를 점검하는데, 한 번은 칠판으로 사용해야 할 합판이 문이 되어 달린 걸 알게 됐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책임 목수가 환하게 웃으며 칠판은 원래 합판 한 장만 필요하니까 남은 합판으로 부서진 문을 수리했다고 했다. 칠판이 작아서 불편하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크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미 교실에는 칠판이 끝난 칠판이 딱히 달려 있어서 그저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 중에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우리와 소통하기 힘들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핸드폰을 가진 주민에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보수가 끝난 학교 전면

속리산 법주사에서 함께한 다문화 가족 봄나들이

한 번은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이 끝났다고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건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무늬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페인트를 제대로 적지 않고 사용해서 처음에는 연한 미색이었던 페인트가 갈수록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칠했다고 솔직히 지적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페인트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하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주민들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JTS의 기술자문인 미오 씨가 다시 안내해주는 페인트 섞는 법, 젖는 법, 칠하는 법을 집중해서 경청했다.

다음 주,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방문한 학교는, 벽과 지붕 옆이 거의 같은 색으로 칠해져서 한결 깔끔해진 모습이었다. 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최고”라고 하니 모두 환하게 웃는다. 따라오라고 손짓을 해서 따라가니, 전에는 칠이 되어 있지 않았던 곳을 가리킨다. 비가 와도 문제없을 만큼 페인트가 구석구석 잘 칠해져 있었다. 다시 한 번 “최고”라고 하는데 내 기분도 좋아졌다.

2015년 9월에 시작한 학교보수가 2016년 5월에야 겨우 끝났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함께 하고, 이런저런 요구에도 늘 웃으며 받아주었던 책임 목수와 방문 때마다 활동가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애써 주었던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보수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몇몇 아이들이 교실 옆에서 놀고 있으니 미오 씨가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는 수줍어하면서 손가락 한 개를 올렸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쓸 줄 아느냐고 문자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임시 교사 한 명이 예비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을 한 교실에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상황이니 당연하겠구나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는 6월이면 부키드논 주 교육청 원주민 교육담당자가 교사 3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한다. 머루 빛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법륜스님과 함께 떠난 다문화 가족 봄나들이

3월 27일, JTS안산다문화센터 봉사자들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법륜스님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 가족 봄나들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 태국에서 오신 분,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 등 아시아 각국 출신 총 8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법주사 봄나들이는, 지난해 8월 개원한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 기획한 첫 나들이 행사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규림 활동가 / 사진 권성준

“처음 준비한 행사이기에 시작 전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만큼이나 많았던 봉사자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행사 총괄자의 말처럼, 이번 행사는 인천·경기 서부 지부 41명, 충청 지부 15명, 부산 지부 1명 등, 총 6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봉사자들은 3대의 버스에 나눠 올라타고 다문화 가족을 맞이하러 출발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여 다문화 가족을 기다리는 봉사자들의 손에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 팸말이 들려있습니다. 문자로나마 반가운 마음을 전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마주하고 보니, 우려했던 서먹함은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번 나들이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의 출신지가 대부분 불교 국가여서, 해당 국가의 스님을 초청하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고, 속리산 법주사를 방문하여 한국 불교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속리산 법주사에 도착하여 법륜스님과 두 분의 스리랑카 스님, 그리고 태국 스님 한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여는모임을 했습니다.

여는 모임이 끝난 후, 법주사 입구 주차장에서 세심정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마주한 다문화 가족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부안내를 맡은 충청 지부 봉사자들은 미소 띤 얼굴로 연신 “반갑습니다.”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걷는 속리산 산책길, 오랜만에 답답한 일터를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다문화인들의 얼굴은 봄날만큼이나 밝았습니다.



즐거운 속리산 산책길

“한국사람들,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오늘 느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만 시킨다는 표현이 컷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문화인들의 한국생활이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법륜스님의 안내로 법주사 경내를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이 절은 법주사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절은 기원전 553년에 지어졌다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인도에서 경전을 말에 싣고 이곳까지 가져와서 이 절에 보관했다고 해요. 즉 ‘법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절의 이름이 법주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법륜스님의 법주사 경내 안내는 금강문을 지나 석련지, 마애여래의좌상, 팔상전 등 경내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리랑카와 태국은 불교 국가라 그런지 그곳 출신 분들이 특히 더 열심히 설명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주사 경내 풍경

법주사 경내 산책을 마치고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인 모두가 어찌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2시간 30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을 태운 버스가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함께해요.” 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서운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봉사자들만 남은 버스. 훌쩍 지나가 버린 하루가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들어 차창 밖을 보니, 다문화 가족들이 떠나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국적이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마음이 뭉클해진 봉사자들도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2016년 어린이날 전국 거리모금 캠페인

올해 어린이날에도 제삼 세계의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JTS 어린이날 거리모금 캠페인이 전국 120여 개 JTS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 명동 거리에서는 방송, 연극,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봉사 모임인 길벗과 JTS가 함께한 어린이날 명동 거리모금도 진행됐습니다.

명동 거리모금에서는 김병조, 김형주 부자(父子) MC가 행사의 진행을 맡은 가운데 피아니스트 신지호, 가수 난아진, 임현정, 즉흥 음악 연주자 지나가던 조씨가 모금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 무대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배우 한지민, 배종옥, 윤소이, 박진희, 이재우, 임세미, 백승도, 고보결, 김대현, 차중호, 모델 한현민, 정범중, 안병찬, 최동규, 양정두 등, 밝은 봄날의 명동 거리를 한층 더 밝혀주는 멋진 분들이 함께하여 모금과 기부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한 시간 정도 명동 거리 전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약 1천4백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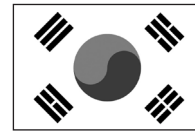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거리모금은 총 3,441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276회에 걸친 모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보름 정도 이어진 거리모금 캠페인으로 약 6천7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가난과 분쟁, 자연재해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와 교육의 기회를 선물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 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자 여러분과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길음중학교 JTS 탐방

5월 25일, 길음중학교 3학년 학생 29명과 선생님 두 분이 JTS 탐방을 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상을 통해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민정신의 의미를 확인하고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JTS 사업과 활동소개, 거리모금 캠페인 안내를 듣고 함께 거리로 나가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 후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좋았고 꼭 기부하면서 살겠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2. 두북 어르신 봉사나들이

5월 25일, 길음중학교 3학년 학생 29명과 선생님 두 분이 JTS 탐방을 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상을 통해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민정신의 의미를 확인하고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JTS 사업과 활동소개, 거리모금 캠페인 안내를 듣고 함께 거리로 나가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 후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좋았고 꼭 기부하면서 살겠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3. 애광원 거주인들과 함께한 봉사나들이

JTS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거제도 애광원에 식수를 지원했던 것을 인연으로, 매년 두 차례 거주인들의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거제도 애광원 거주인 25명과 함께 순천 송광사와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봉사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나들이를 위해 31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송광사 주차장에서부터 애광원 거주인들과 함께 송광사의 경치를 즐기며 함께했습니다.



4. JTS안산다문화센터 다문화 가족 봉사나들이

3월 27일,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로 봉사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중국 연변 등 아시아 각국 출신 총 8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법주사 봉사나들이는 지난해 8월 개원한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 기획한 첫 나들이 행사로, 총 6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5. 연등축제 인도 문화 체험코너 운영

5월 6일 부터 8일 까지, 서울 종로의 조계사 인근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주최한 연등회 연등축제가 열렸습니다. JTS는 5월 8일 열린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하여, 빈디 페이스 페인팅과 인도 전통 복장인 사리 입어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동계스와리의 실태와 JTS의 인도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네팔 지진피해 학교복구 시작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를 복구하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JTS는 네팔 자낙푸르 주 라멘차 지구의 산간지방의 쉬리굽테스와리 중학교, 자칼리 중학교, 뽀차간나 초등학교 3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학교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너진 학교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고, 새 학교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에콰도르 지진 피해지역 현장답사

4월 17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18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1천여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JTS는 4월 25일 부터 29일 까지, 지진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 서부 만타(Manta) 시를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수자타 유치원 미술교육 시작

유치원 커리큘럼 다양화 사업의 한 가지로, 지난번 "동화 들려주기"에 이어 미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월례회의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이 진행되었고, 곧 있을 방학 전에 수자타아카데미의 학생 리더가 선생님이 있는 9개 지역 유치원에서 시범적으로 미술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라는 요구에 아이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각자의 도화지 속으로 폭 빠져들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미술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고, 교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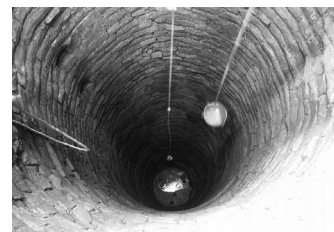
2. 수자타 유치원의 첫 졸업식

인도에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유치원에 다니다가, 그냥 오늘부터는 초등학교에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졸업식"이 수자타의 유치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학부모님, 선생님, 마을 교육 공무원이 초대되고, 선생님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의 가슴에 졸업 배지를 달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율동과 노래로 손님들 앞에서 작은 공연을 펼쳤고, 졸업 기념으로 학용품과 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노란 교복에 빨간 졸업 배지를 달고 등에는 뽕뽕한 가방을 멘 아이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던지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 들고 환한 웃음 지으며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큰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3.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리더로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업을 시작한 수자타아카데미는, 처음에는 문맹 퇴치를 위한 초등학교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에, 학교와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중학교를 추가로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타아카데미의 중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갈 6학년 초등학생들이 한 달간 리더 교육을 마치고 봉사 선서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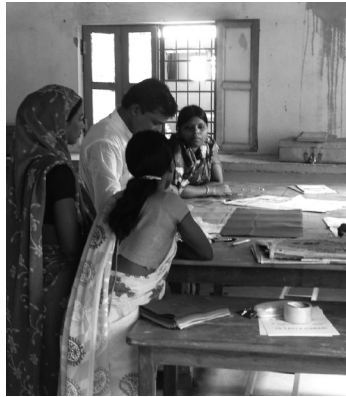
4. 까나홀 마을의 물 부족

동계스와리의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까나홀 마을은 JTS가 관리하는 15개 마을 중 가장 잘 살고, 개인용 수동 펌프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유치원의 목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을 개발 팀장인 빠안 씨와 사무국장이 마을을 방문해 물 부족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마을에는 올해 배정된 수동 펌프 5기를 모두 설치한 상태라 펌프를 더 설치하기 힘든데, 물 부족에 대한 건의와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도 JTS는 물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개발팀 스태프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 마을 극빈자 구호사업

5월 초, 극빈자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극빈자 지원 사업은 한 해에 네 차례, 마을마다 극빈자를 선정해서 약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쌀과 달(잡곡의 일종), 식용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마을개발팀 팀장과 스태프들이 직접 방문해서 마을별 극빈자 가구를 재선정하고, 전체의 반 정도의 극빈자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덕분에 자녀가 장성하여 일손을 돕고 있거나, 다른 일로 생계가 보장된 이들은 극빈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6. 재봉반 운영

새 선생님, 새 학생들과 함께 2016년 재봉반을 시작했습니다. 재봉반은 마을 부녀자들이 재봉기술을 익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7. 저체중아 지원사업 1차 지원

2016년 저체중아 1차 지원 사업을 15개 마을 5세 미만 영유아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발육 상태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2~4등급의 아이들에게 비타민과 쌀, 콩, 식용유, 비스킷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의 달라진 부분은, 이들에 걸쳐 모든 측정 대상자 부모에게 저체중아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날은 정상 체중 영유아의 부모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발육을 돕기 위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8. 순서대로 줄 서서 진료 받는 지바카 병원

인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환자도 늘어갑니다. 하루 평균 100명 내외이던 환자 수가 5월 들어 많은 날은 200명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외부에서 온 동종요법 의사의 진료 봉사를 통해 15개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진료 접수를 하는데, 아픈 사람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아직 공공질서 의식이 부족한 편이라, 환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만 진료 신청을 받고, 줄을 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만타부 초등학교 1회 졸업식

4월 4일, JTS 센터에서 가까운 만타부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려 6학년 주닐이 최초 졸업의 영예를 얻었고, 나머지 134명의 학생도 상급 학년으로 진급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에 개교한 만타부 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 정규 교사가 파견된 이래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교실 2칸을 증축하였고, 지난 2015학년도 신학기부터 예비 초등학교에서 정규 초등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건설교통부에서 5~6학년을 위한 교실 2칸을 더 짓고 있고, 오는 신학기부터 새로 파견될 교사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정규 교사가 근무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정규 초등학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6학년으로 진급한 12명의 학생이 모두 내년에 졸업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2. 라나오 델 노르페 주 무나이 군 2개 학교 보수

5월 셋째 주부터 6월까지 무슬림 지역인 라나오 델 노르페 주 무나이 군 땀빠란 예비 초등학교와 마룬дук 유아원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두 학교는 각각 2010년과 2007년에 준공했으나, 2009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고, 마룬дук 유아원은 주민들이 기존의 낡은 목조 벽을 콘크리트 구조로 바꿔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번 보수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기부터는 땀빠란 예비 초등학교 학생 64명, 마룬дук 유아원 아동 30여 명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알라원 마을 방문

교사 숙소 보수작업 안내와 학교 건물의 지진 피해 조사를 위해 알라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파견된 두 명의 활동가가 방문하니 알라원 사람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인 미오 씨의 안내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들고 함께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페인트칠은 살아있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지난 4월 두 번의 작은 지진으로 인해 학교 밀기둥 3곳의 시멘트가 부서졌습니다. 개교 전에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주민들과 의논하여 작업일정을 잡고 필요한 건축자재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4. 수밀라오 특수학교 건축 준비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 주 수밀라오 군에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수밀라오 군은 민다나오 섬 내에서도 손꼽히는 빈곤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다면, 2003년 JTS가 말라카스 군에 부키드논 주 최초의 특수학교를 건설한 데 이어 두 번째 특수학교를 건설하는 셈입니다. 수밀라오 군 교육청이 파악한 장애 학생이 87명인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명입니다.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수밀라오 군수와 수밀라오 군청 기술자, 수밀라오 지역 교육담당관, 학교 교장, 그리고 JTS 활동가들과 건축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 건축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교 건축은 6월에 시작해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수학교 건축은 성남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재정 후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 시범 농장 옥수수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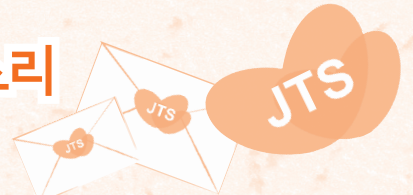
시범 농장에 2015년 12월에 심었던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작년 7월 이후로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5개월 만에 수확했지만, 크기도 작고 낱알도 거의 들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필리핀 전역이 가물어서 옥수수를 아예 심지도 못한 곳에 비하면 이 정도 수확도 고마운 일입니다. 온갖 먼지를 마시며 낱알을 털고 나니 378kg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1주일 정도 더 말려서 제분소에서 콩그리드(옥수수 쌀)로 만듭니다. 그러면 250kg이 됩니다. 콩그리드는 현지 쌀에 비해서 찧기가 있고 가격이 싸서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범 농장의 옥수수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곡물이라, 아는 사람들에게만 소량 판매했습니다. 이제는 1주일에 2~3일은 비가 와서, 새로 심은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풍년을 기대합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박세환, 백은하, 강혜정

필리핀 안병주, 원석환, 송치현, 조혜림

후원인의 소리



1년간 모은 지각비입니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동작고2-7(2015) -

작은 아들의 생일, 부처님 감사합니다.
- 방현희 -

문지윤 첫돌 축하!!!!
- 문석훈 -

박지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네가 지닌 행운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구나.
사랑해 지현아.
- 2016. 3.2 초등학교 입학식날에 지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

이민호 박선영의 건강 행복을 기원합니다.
- 박동수 -

박순미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박동수 -

3월 4일 고선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12월 18일 신용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1월초 김정량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편안하기를...^^
- 홍진숙 -

하루속히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가
이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 엔진튜브텍 -

아버님 문판술님의 극락왕생 기원하며
수자타아카데미에 후원합니다.
- 문형순 -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하여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 회향합니다.
- 이영희 -

지진으로 고통받는 일본과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성채현 -

조명대 부장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49재일을 기념하여 후원합니다.
- 윤명실 -

첫 손자 강근일의 돌을 맞아 인도의 굶주린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현 -

전동락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 전우찬 -

석민이의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 조혜진 -

특별후원금 (2016. 3. 01. ~ 2016. 4. 30.)



2016년 3월 북한

강민준	10,000
권우주	50,000
김경미	30,000
김성훈	2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30,000
김윤숙	50,000
김윤홍	100,000
나경주	100,000
남기선	50,000
남주미	30,000
동작고2-7(2015)	110,000
박완임	10,000
박진용	32,100
북한	4,000
서양숙	30,000
성채현	20,000
신재영	20,000
신종섭	20,000
안재만	100,000
염인용	150,000
여인목	800,000
유정민	20,000
유자수	10,000
이남구	10,000
이도경	20,000
이부건	5,000
이영희	100,000
이진승	30,000
이영희	100,000
이요한	30,000
이진일	30,000
이호식	10,000

정민호	50,000
정세진	117,000
최병조	5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30,000
한성욱	100,000
허대영	10,000
홍진숙	10,000
황용구	50,000
강민준	10,000
김경란	50,000
김성훈	1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나경원	100,000
남기선	50,000
박정용	35,000
성채현	2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이영희	50,000
이진일	20,000
임규연	30,000
정민호	20,000
정현욱	30,000
조경화	50,000
필리핀	4,000
홍진숙	10,000
김미경	30,000
김미옥	3,000
김미정	50,000
김민경	10,000
김민수	30,000
김성자	200,000
김성훈	1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20,000
김수진	200,000

한동규	3,000
한성욱	100,000
홍진숙	10,000
필리핀	
강민준	10,000
김성훈	1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나경원	100,000
남기선	50,000
박정용	35,000
성채현	2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이영희	50,000
이진일	20,000
임규연	30,000
정민호	20,000
정현욱	30,000
조경화	50,000
필리핀	4,000
홍진숙	10,000
JTS 전체사업	
9394	50,000
0173624453	100,000
081-윤성원	50,000
26기백일출가	343,000
강문봉	30,000
강민경	40,000
강민준	20,000

강병주	200,000
강선용	100,000
강쌍임	40,000
강혜원	300,000
강희란	30,000
강희석	1,000,000
거창군농협법36,010	
고정자 수정법당	200,000
곽도순	20,000
구미숙	500,000
국배구호	10,000
권경영	30,000
권영세	50,000
권용국(깨장747차)	50,000
권은하	50,000
금삼승민승필31,000	
가정임	30,000
김경희	5,000
김계화	40,000
김기용	3,000,000
김도연	30,000
김명진	50,000
김미경	30,000
김미옥	3,000
김미정	50,000
김민경	10,000
김민수	30,000
김성자	200,000
김성훈	1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20,000
김수진	200,000

김승희	50,000
김언국	180,000
김여진	365,000
김연옥 당진	21,600
김영선	100,000
김운하	90,000
김운하	30,000
김운하	30,000
김유진	20,000
김유진	10,000
김윤구	300,000
김일명	100,000
김종균	300,000
김종목	10,000
김준희	9,830
김지수	5,000
김진경	20,000
김진용	60,000
김창선	700,000
김판기	40,000
김한	1,000,000
김현식	20,000
김황숙	10,000
김희연	10,000
김희연	10,000
김희정부사	200,000
깨장384차	400,000
나송자	100,000
나연우	10,000
남기선	150,000
노용주	300,000
노하진	10,000
노하진	10,000
다문화이미준	10,000
동화	50,000
류수진	30,000

문경희	500,000
문석훈	300,000
민목희	100,000
박계만	10,000
박관자	10,000
박동수	100,000
박미영	300,000
박미혜	100,000
박상철	100,000
박선영	100,000
박설아	100,000
박수자	30,000
박순양	20,000
박영기	10,000
박완임	10,000
박윤정	200,000
박은숙	20,000
박정숙	100,000
박정자	5,000
박종순	500,000
박지영	100,000
박진옥	300,000
박진현	300,000
박혁진	30,000
박현진	100,000
박화자	10,000
반미정	30,000
방현희	20,000
배낙형	200,000
배명호	300,000
배병문	20,000
배성호	50,000
배성호	80,000
배정기	160,000
백건구	20,000
백승분	10,000

백승원	200,000
백영아	45,000
백은숙	200,000
백종윤	300,000
변동해	10,000
서동확	5,000
서말선	10,000
서민경	5,000
서양숙	30,000
서형섭	5,000
서희경	5,000
설경자	121,000
성채현	40,000
소연화	100,000
손영희	30,000
송종수	100,000
송종수	100,000
신광설 영주	71,600
신동근	50,000
신영희	1,000,000
신재영	10,000
신재욱	10,000,000
신정식	200,000
신종섭	10,000
심기숙	10,000
심기옥	10,000
아이캔플라이 대광고	32,500
안도현	20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안혁	500,000
양미순	50,000
양승종(대전)500,000	
양윤석	30,000
양이숙	30,300
염인용	150,000
오경석	360,000
오미경	88,500

오윤경	10,000
오혜숙6890	2,000,000
왕옥선	50,000
우성배	50,000
원철웅	30,000
유동근	100,000
윤경미	30,000
윤경애	30,000
윤미	5,000
이귀숙	20,000
이동원	100,000
이미향	10,000
이선이	50,000
이승희 부천	15,220
이숙	20,000
이승용	20,000
이시영	36,520
이영	100,000
이영배	1,000,000
이영희	50,000
이원규	100,000
이용자	30,000
이원형	10,000
이유진	20,000
이윤희	300,000
이은정	18,000
이재만	20,000
이정호	35,000
이정호3106110,000	
이진승	50,000
임종현	200,000
장성우	10,000
장원숙	10,000
장은숙	50,000
장인명	400,000
장인자	100,000
장현련	10,000

장형도8849	30,000
전선희 부천	17,450
전옥주6548	20,960
전주약사회	152,100
정경아	30,000
정교순	2,400,000
정교필	100,000
정금례	50,000
정민호	30,000
정수연	10,000
정장숙9453강서	100,000
조문기 수정법당	150,000
조복남	100,000
조수정	50,000
조양순 수정법당	100,000
조영자	20,000
중국에서	30,000
지광명	36,000
진건형(바로선병원)	1,000,000
차지은	34,000
채희백	100,000
청주법당	131,110
최경자	100,000
최경희	31,000
최동녘	50,000
최명숙	30,000
최복림	100,000
최봉례	34,000
최상노3588100,000	
최선희	100,000
최세열	120,000
최유규	141,760
최은숙	28,720
최은자	6,240
최정윤	50,000

최정자	471,000
최진영	1,000,000
최현구	20,000
플러스4인방	7,700
하봉기100,000,000	
한양순	30,000
한중호	20,000
현승혁8404500,000	
홍순미4577	50,000
화명	44,030
황소영	50,000
황영애	10,000
황영희	30,000
희광강연	146,100
ATM입금	50,000
jts전체사업	1,000

엔진투브택	200,000
유소영	10,000
윤미숙	50,000
윤정은	50,000
이남구	100,000
이미란	70,000
이요한	30,000
이진일	30,000
주수영	150,000
하지민	10,000
한진일	2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30,000
한선진	50,000
한성욱	100,000
허대영	10,000
황윤주	30,000

김민호	10,000
김소영	5,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40,000
김진환	50,000
나경주	100,000
백경화	50,000
서광명	50,000
소진호	3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심지연	1,000,000
이남구	100,000
이동원	100,000
이진일	20,000
주수영	150,000
하지민	10,000
JTS 전체사업	
0173624453	750,000
0173624453	100,000
01062111826	10,000
(주)아모레퍼시픽	240,000

김민호	10,000
김소영	5,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40,000
김진환	50,000
김현정	20,000
김효정	10,000
나경원	100,000
문형순	50,000
백경화	50,000
서광명	50,000
소진호	3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이남구	100,000
이요한	20,000
이주현	100,000
이주형	10,000
이진일	20,000

081-허영선 50,000	김수영 10,000	박정숙 50,000	신인자 100,000	이은경 100,000	조영숙5072100,000
081-허영선 10,000	김수윤 10,000	박주하 50,000	신재영 10,000	이정여 5,000	조영자 20,000
1463차개장정영숙 100,000	김승희 50,000	박준규 200,000	신종섭 10,000	이주한 1,000,000	조혜진 50,000
LIUYUANZHE 30,000	김애자 30,000	박준환 30,000	심귀옥7310안 20,000	이진마로서천법당 3,680	주정문 3,000,000
강경림 10,000	김연진 200,000	박지민 5,000	심기옥 10,000	이진희 200,000	중국에서 30,000
강미선 10,000	김영숙 104,000	박지은 100,000	안병주 10,000	이창제서천법당 40,250	진주정보법당 40,000
강선경2788200,000	김운하 90,000	박진현 60,000	양영훈 100,000	이항원 39,340	차지은 52,000
강희란 30,000	김유진 40,000	박태하 5,000,000	양예삼대소신백호 100,000	인도 4,000	최경자 50,000
고재숙문경법당 100,000	김은경 100,000	박해진 30,000	양진영 10,000	임근영 600,000	최경희 30,000
곽봉준 500,000	김은영 20,000	박현진 100,000	엄시현 30,000	임근영 400,000	최동택 50,000
국병호 34,560	김은정 100,000	박화자 10,000	오윤경 10,000	임동욱(세움전산) 130,000	최명옥 100,000
권경민 100,000	김응 500,000	박현희 20,000	오즈약국 김현아 100,000	장영진3249 20,000	최은령 50,000
권경영 30,000	김인기 5,000	반미정 30,000	옥현재 280,000	장성우 10,000	최인권 50,000
권영세 50,000	김정남 100,000	배병문 20,000	원철용 80,000	장세영 20,000	최재윤 10,000
권윤숙 41,550	김준웅 200,000	배상익 36,440	유재호 10,000	장현련 10,000	최점석 20,000
금미선 829,787	김지식 50,000	백명심화 300,000	윤경미 30,000	전외자 200,000	최정실때지 8998
금삼승민승필30,000	김지훈 10,000	백승완 200,000	윤경애 60,000	전우찬 100,000	최정운 50,000
가정임 30,000	김창익 200,000	백영아 45,000	윤명실 200,000	전체사업 1,000	최제익 20,000
김경수 150,000	김현정 10,000	백정자 30,000	윤미경 100,000	정경아 30,000	최준현(김은수) 5,000,000
김경애 1,000,000	김희연 10,000	배두호텔허브점 89,720	윤미라 600,000	정교필 100,000	최현숙 100,000
김경애 700,000	나용학 5,000	변동해 10,000	윤지연 10,000	정금례 50,000	최환식 500,000
김경애 475,000	나호연 100,000	북한 4,000	아귀숙 20,000	정나영 100,000	필리핀 4,000
김경희 5,000	노하진 10,000	서광영 50,000	아규정 100,000	정연길 300,000	하지민 10,000
김계화 60,000	도미라 10,000	서말선 10,000	이근재 500,000	정우철 1,500,000	황소영 50,000
김대광 10,000	류수진 30,000	서민자 90,000	이묘임 50,000	정윤침 220,000	황영애 10,000
김말숙 10,000	문관우 13,770	서정규 20,000	이미향 10,000	정인규 30,000	
김미숙 26,400	민병두 50,000	서초강연후원금 570,000	이상훈 300,000	정인규 30,000	
김미영 200,000	박계만 10,000	서초지진기금88,250	이석용 10,000	정정자 인천때지 24,450	
김미옥 3,000	박근태 100,000	성소숙 20,730	이선구 17,950	정정희 400,000	
김미정 50,000	박노옥 50,000	성채현 70,000	이선이 50,000	정현옥 30,000	
김미향 50,000	박상철 100,000	성치린 150,000	이승민 서천법당 34,000	정혜진 3,000,000	
김민주 20,000	박수현 36,320	송재석 30,000	이승호 80,000	조기송 20,000	
김민호 10,000	박순양 20,000	송종수 100,000	이양섭 50,000	조시연 1,000,000	
김병주 20,000	박연숙 300,000	신동근 50,000	이연숙 100,000	조양순 100,000	
김선희 49,450	박영기 10,000	신동근 50,000	이영한 50,000		
김소영 5,000	박옥경 114,000	신선희 21,000			
	박원임 10,000	신승완 50,000			

해외JTS 후원금 (2016. 3. 01. ~ 2016. 5. 31.)

미 국 J T S 2016년 3월

김명 \$50.00	김소현 \$70.00	김윤진 \$100.00	김학노 \$50.00	노유경 \$50.00	무주상 \$5.00	무주상 \$20.00	무주상 \$20.00	무주상 \$20.00	무주상 \$90.06	박경배 \$120.00	박승용 \$30.00	박승용 \$30.00	박현수 \$17.17		이윤희 \$100.00	임선희 \$100.00	정수길/홍희선\$50.00	최만성 \$20.00	최수영 \$200.00	하인경/심봉주 \$500.00	하주홍, 하혜숙\$20.00	하주홍, 하혜숙\$20.00	Benevity \$50.00	CYTHIA CHOI AHN \$50.00	HUI YONG \$30.00	RATLIFF \$30.00	JUHI LEE \$100.00	JUHI LEE \$100.00	KUNG O HONG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UNG O HONG \$100.00	KYUNG J KIM \$10.00	Lauren Carree \$100.00	SOO JIN YOUNG \$50.00	TERRY KWON \$300.00	권해원 \$100.00	권희정 \$200.00	김부연 \$1,500.00	김윤진 \$80.00	맨하탄법당 \$30.00	무주상 \$5.00	무주상 \$39.00	무주상 \$40.00	무주상 \$20.00	무주상 \$100.00	박경배 \$120.00	박현수 \$50.00	신석총 \$20.00	이성숙 \$400.00	이영국 \$60.00	이종경 \$300.00	이지원 \$180.00	임선희 \$100.00	장재영 \$100.00	전심진 \$20.00	전영주 \$20.00	전용학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국 J T S 2016년 4월

EUN J CHANG \$50.00	HAENGCHA Y \$50.00	CHONG \$50.00	HAKNO KIM \$50.00	JANE G HONG \$100.00	JONGSIK M. AHN \$100.00	JUHI LEE \$100.00	KYOUNGMIN KIM \$100.00	KYUNG J KIM \$10.00	LA JUNGTO \$376.00	LAUREN CARREE \$100.00	MARYANN M KIM \$50.00
---------------------	--------------------	---------------	-------------------	----------------------	-------------------------	-------------------	------------------------	---------------------	--------------------	------------------------	-----------------------

정선이 \$30.00	정주영 \$20.00	조경은 \$100.00	하주홍, 하혜숙\$20.00	한정희 \$100.00	허정연 \$120.00	AEELEE LEE \$240.00	BENEVITY\$274.00	DONG MOON KIM \$150.00	DONG YOUNG YI \$800.00	EUN J CHANG \$280.00	HAE WON KWON \$50.00	HAENGCHA Y \$50.00	HAKNO KIM \$50.00	JANE G HONG \$100.00	JONGSIK M. AHN \$100.00	JUHI LEE \$100.00	KYOUNGMIN KIM \$100.00	KYUNG J KIM \$10.00	LA JUNGTO \$120.00	LAUREN CARREE \$180.00	MARYANN M KIM \$30.00	MYOUNG SOOK \$1,000.00	RHEE CHOI \$600.00	OLIVIA LEE \$1,000.00	SHUNG SHIM KIM \$1,000.00	SUNG SOON KIM \$200.00	TIP J \$150.00	ENTERPRICES \$1,200.00	YOOKYOUNG NOH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수지 \$1,000.00	유승목 \$20.00	유주영 \$40.00	이동영 \$400.00	이영국 \$162.00	이재인 \$100.00	이정희 \$200.00	이주희 \$100.00	이지훈 \$120.00	이화영 \$40.00	임선희 \$200.00	정해주 \$100.00	최경숙 \$50.00	A&J Seattle \$80.00	KUNG O HONG \$100.00	KYUNG J KIM \$10.00	Lauren Carree \$100.00	Linda Davis \$100.00	SOO JIN YOUNG \$50.00	YONG S SUH \$100.00	노유경 \$75.00	무주상 \$5.00	민윤기 \$120.00	박경배 \$120.00	박상희 \$180.00	박승용 \$30.00	박현수 \$50.00	시에틀링토회 \$30.00	신미라 \$20.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국 J T S 2016년 5월

고옥희(Benevity) \$112.00	권해원 \$50.00	김명현 \$50.00	김명희 \$200.00	김미경 \$100.00	김선희 \$50.00	김윤진 \$100.00	김지현 \$60.00	노유경 \$75.00	무주상 \$5.00	민윤기 \$120.00	박경배 \$120.00	박상희 \$180.00	박승용 \$30.00	박현수 \$50.00	시에틀링토회 \$30.00	신미라 \$20.90
------------------------	-------------	-------------	--------------	--------------	-------------	--------------	-------------	-------------	------------	--------------	--------------	--------------	-------------	-------------	----------------	-------------

나눔저금통 현황 (2016. 3. 01. ~ 2016. 4.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인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서
강서법당 41,020 강서법당 192,870

거제
거제법당 153,320

거창
거창법당 218,470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114,290

경산
경산법당 70,300 경산법당 19,870

경주
경주법당 112,370 경주법당 185,170

광명
무명 69,560 무명 24,030 문소정 21,670 장효숙 30,800 최경화 27,660 황지현 15,900

광주
광주법당 161,910

구미
구미법당 88,270 구미법당 18,660

기장
기장법당 92,200 침조은약국 82,330

김천
김천법당 21,970

김포
김포법당 145,120 김포법당 26,510

김해
김해법당 76,010

남양주
최은자 6,240

내서
내서법당 159,620

노원
노원법당 88,470 노원법당 91,620 노원법당 46,530 노원법당 70,270 노원법당 109,010

달성
달성법당 108,970

당진
김연옥 21,600 당진법당 47,080

대구
구남보건고교공용과1-5 31,900 김경남 39,300 김성진 16,110 테레사마트지산점 13,000 도가위 36,050 동구각산오프인마트 13,010 무명 21,110 무명 34,340 무명 23,730 무명 22,940 무명 19,540 범물투게더마트17,550 선준수 21,950 이선아 22,800 이철우,이창희 98,510 이희택 23,360 임금실 42,720 임충훈 27,400 지산데레스소비센타 34,180 투게더마트범물점2개 32,930 호반수퍼 16,200 황순남 20,130

대연
대연법당 254,830 대연법당 195,810

도봉
김승숙 14,400 신문남 39,490 오주연 43,830 우근희 39,900 윤영화 27,630 이현정 15,630

동래
김영우 29,730 김주점 17,870 김행란 24,990 김현정 21,490 동래법당 356,660 류숙희 42,000 무명 1,470 무명 19,570 박경옥 27680 박상우 18,320 박선이 36,070 박성호 48,180 박영옥 28,470 박예진 2,980 박희숙 89,680 송현주 215,750 양영순 28,540 옥다원 48,160 원선호 30,750 이나금 201,550 이나금 63,100 이항순 37,500 장석원 12,310 정현석 13,740 최민서14,030

동작
동작법당 86,300

둔산
강희규 12,190 고재영 7,980 김연순 26,380 동촌한의원 164,000 무명5개 79,190 문윤순 22,350 서동33,100 서동욱 47,500 석정호 14,920 신선숙 15,300 엄경애 46,670 오연심 7,710 원지원 25,540 유인자 22,030 윤연숙 23,790 윤영

희 19,390 이기자 11,840 이동일 23,710 이순덕 17,890 이재숙 18,060 이재숙 31,780 주일학교 17,680 진연실 14,600 진연실 12,940 홍순덕 15,020 홍윤표 30,930

마산
마산법당 115,440 마산법당 62,450

목포
목포법당 125,230

문경
최우근 32,300 최우근 30,410

밀양
밀양법당 129,000

방어
방어법당 169,890

부천
김선희 49,450 배상의 36,440 서현태 23,410 이송희 15,220 이시영 36,520 전선희 17,450

부평
김성무 30,410 김성욱 45,180 김연희 15,650 김연희 19,050 김희정 29,700 김희정 27,580 늘그린 17,620 늘그린 15,500 미추홀세무법인 140,000 이희숙 21,960 이희숙 21,700 조금이 24,930 차영모 24,460 최서현 10,270 최서현 9,150 최인희 5,600 형우엄마 23,260

사하
김사문 36,100 김심녀 17,520 김영미 32,010 김현자 23,410 무명 6,200 무명 10,620 무명 2,500 산순애15,350 심모희 17,950 이진경 13,870 정시원 33,780 정희순 16,750 정희숙 12,700 조인숙21,100 조인숙 22,800 지한아 22,530 최미영 8,890 최민준,정지원 22,500 표유경 13,500

서면
서면법당 474,950

서산
서산법당 48,260

서천
서천법당 109,480 이승민 34,000 이진마로 3,680 이창제 40,250 최윤정 72,240

성동 성동법당 105,110 성동법당 23,980

성북 성북법당 165,250

성서 성서법당 49,720 성서법당 36,880

세종 세종법당 15,950 세종법당 24,050

송도 송도법당 238,450

송파 송파법당 127,660

송현 송현법당 20,950 송현법당 149,780

수정 수정법당 20,350

순천 순천법당 47,220

안동 안동법당 190,690 안동법당 26,880

안산
권석 18,770 김미경 30,350 무명 19,950 안산법당 25,280 유미화 21,280 이시일 21,860 최지연 23,780

안양
김덕희 19,100 서성영 30,150 이소현 28,560 조주영 12,390 황정연 28,090

양덕
양덕법당 105,730

양산
무명 37,550 최귀남 24,140

영주
신광섭 71,600 안준덕 61,000

영통
영통법당 110,240

울산
구경순 35,830 김도형 28,200 김세엽 23,130 김시형 16,570 김영주 38,000 무명 86,110 문순심 23,500 박기현 29,630 박향숙 26,560 서길화 16,430 세계로마트 43,510 심숙희 80,000 심숙희 40,000 울산번호판 27,760 이새현 17,630 이태령 51,900 정한채 17,200 정희진 28,930 LIG미직카캠크점 22,770

원주
김영순 7,580 손두한 28,210 유연희 24,690 이나영 9,590

음성 음성법당 114,100

인천
무명 81,600 무명 51,360 무명 34,950 이선구 17,950 정청자 24,450

일산 일산법당 140,020

장유 방복자 4,890

제주 제주법당 17,830 제주법당 60,250

제천 제천법당 90,880

중랑 김언필 17,660 장석규 35,920

진주 진주법당 330,490

진해
진해법당 57,840 진해법당 15,270

창원
창원법당 149,430 창원법당 39,980

천안 천안법당 275,770

청주
청주법당 371,780 청주법당 114,320

태전
태전법당 27,160 태전법당 53,720

통영 통영법당 73,300 통영법당 29,120

파주 파주법당 72,140 파주법당 26,950

함안 함안법당 16,350

해운대
해운대법당 404,440

홍성 홍성법당 16,380

화명 화명법당 21,890 화명법당 44,030

화봉 화봉법당 92,700

흥덕 흥덕법당 257,270

기타
국병호 34,560 권윤숙 41,550 김미숙 26,400 김민주 20,000 김준희 9,830 문관우 13,770 박수현 36,320 성순옥 20,730 안센저천인근 40,860 정토법당 67,630 제이티에스나눔돼지 30,000 최은숙 28,720 최정심 40,380 한승영살래 4,370

거리모금 현황

(2016년 03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강동 62,300 강서 118,550 강화 75,000 거제 783,500 경기광주 80,610 경산 161,600 경주 716,080 계룡 146,000 관악 198,800 광명 201,900 광주 1,306,870 구리 488,250 구미 833,160 관선 271,870 기흥 157,100 김천 388,580 김해322,250 남산 285,560 남양주 150,090 내서 63,000 노원 841,320 달성 164,950 당진 272,760 대구 2,457,870 대연 345,800 대전 248,800 덕산 855,910 덕양 290,250 도봉 390,570 동래 564,590 동작 33,000 마산 792,970 목포 361,300 문경 219,830 부천 269,650 부평 246,490 분당 32,500 사천 335,600 사하 634,220 상주 100,000 서대문 213,750 서면 105,020 서산 235,510 서초 1,437,850 서천 204,190 성동 200,400 성서 310,300 세종 313,650 송도129,470 송파 232,280 송현 316,640 수원 1,306,600 수정 1,550,000 순천 513,820 안동 523,150 안산 97,460 안산센터 62,280 안양 234,550 양덕 630,700 양산 511,260 양천183,350 양평 163,000 여수 152,000 영주 389,410 영천 88,100 영통 332,760 용인53,000 울산 186,550 원주 146,420 유애경 86,900 은평 87,510 의정부 212,200 인천219,970 일산 118,910 전주 164,500 정토 160,650 제주 84,400 종로 63,940 중랑240,700 진주 802,000 진해 175,580 창원 423,580 처인 264,800 천안 846,910 청주345,060 충주 34,000 태전 115,300 파주 103,010 평택 276,950 해운대 708,600 홍성 191,44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북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인도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필리핀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JTS 전체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 (소식지 수령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음)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 (인) (연락처 :)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대우리 부면 전체를 펼칠하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신청서 제출 후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회원정보와 후원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출금계좌 CMS 출금이체에 대한 뒷면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가 후원인 본인이거나, 예금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금주 연락처 :)	
은행명	후원금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CMS 출금 동의 후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회원관리(기부금영수증 발급)통역금 인출 수신통역금 선별주민등록번호(핸드폰이메일주소)예금주명(예금주 생년월일)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5년(일 이후 만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연방성인 간소화 서비스, 수신통역금,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이후 만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성인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 *수탁업체: (사)한국제이티에스 위탁업무: CMS출금이체 승인 및 장사 제관(연방 예금주 명세표 작성, 생년월일)은행명 출금 계좌번호(핸드폰)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5년(일 이후 만년) 제3자 업무위탁(수탁회사)프로그래머, 업무담당, 회원관리(연방인) 서비스(기부금영수증 발행, 자금정보) 선별주민등록번호(핸드폰)이메일주소(예금주명)예금주 생년월일(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5년(일 이후 만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후원금 출금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목적: 기관, 국제성, 제3자(무선) 연방성인 간소화 서비스, 자금정보, 선별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만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성인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 후원계좌 안내

별첨 후원금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